

[사회]

광주 아동학대 매년 증가

지난해 237건 발생 편부·재혼 가정서 많아

광주지역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부와 재혼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촉구되고 있다.

13일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37건으로 전년 186건에 비해 21.5%가 증가했다.

이 중 편부 가정의 아동 학대가 29%(68건)로 가장 많았고, 일반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도 44건으로 18.6%나 됐다.

또한 최근 이혼가정이 늘면서 지난해 재혼 가정의 아동학대 건수도 25건으로 전체 비중의 10%대를 넘어섰다. 학대 행위자 중 친부와 친모의 비

중이 각각 40.1%, 17.3%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계모의 아동학대 비중도 ▲2005년 2.5% ▲2006년 5.9% ▲2007년 5.1%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아동의 연령은 12~14세가 59건(24.9%)로 가장 많았고, 학대 부모의 연령은 30~39세(106건·44.7%)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나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아동을 학대한 부모의 직업은 ▲단순노무직 49건(20.7%) ▲무직 28건(11.8%) ▲주부 19건(8%) 순으로 경제적으로 힘들때 학대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형별로는 방임 학대가 57건(2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서학대 31건(13.1%) ▲신체학대 27건(11.4%) ▲성학대 5건(2.1%)순이었다.

신체학대 유형별로는 '도구'가 113건(67.3%)으로 가장 많았고, '손과 발'이 40건(23.8%)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및 기술 부족과 스트레스 등 분노조절이 되지 않고 충동적·공격적인 성격과 관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체와 정서학대, 정서와 방임 등의 중복학대가 117건으로 전년 19건에 비해 급증했다.

한편 울산에선 6살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계모 오모(30·울산시 남구)씨가 붙잡혔으며, 서울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해 네 살배기 딸을 흉기로 살해한 김모(여·37)씨가 잡히기도 했다.

/광필상기자 kps@kwangju.co.kr



광주과기원 졸업식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13일 오후 원내 오픈관 대강당에서 '200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학위 수여식에서는 박사 27명, 석사 99명 등 모두 126명이 학위를 받았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주5일 수업 2011년까지 전면 확대 수석교사 시범운영제 연내 법제화

교육부·교총 합의

주 5일제 수업을 2011년까지 전면 도입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수석교사 시범 운영 제도를 연내 법제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3일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서남수 차관과 이원희 교총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조인식을 가졌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1년 제 수업이 전면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선, 교육·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나홀로 학생 보호 대책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 수석

교사제를 시범 운영하고 연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며 유지된 교사의 근무 조건 향상을 위해 종일반 정규교사 배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연수 이수 학점 실적을 호봉에 반영하고 대학원을 수료한 경우에도 학점으로 인정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학교 운동경기 선수 등에 대한 학습·심리적 체벌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건강을 위한 3R(자기 혐안 알기, 패스트푸드·탄산음료 안먹기, 바른생활 습관 실천하기)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신임 광주 고법·지법원장 인터뷰

“고법재판, 최후심되게 할 것”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재판은 지식이 아닌 지혜로,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해야 합니다.”

신임 김관재(54) 광주고등법원장은 13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솔로몬의 재판처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혜롭게 하면 ‘석궁테러’나 ‘판사를 죽이고 싶다’는 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고법원장은 특히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고등법원이 더욱 신경을 쏟아야 한다”면서 “고법재판이 최후 사실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든 재판업무에 철저한 구술심리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는 만큼 ▲정점 확정질차 ▲쟁점별 증인신문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유·무죄 인정과 양형 심리를 분리 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배심원제)’ 대해서는 “배심원제는 주인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 행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아직 국민의식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진 출신인 김 법원장은 광주 일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1980년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7기)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수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전주지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민원 해결 실질적 도움줄 것”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국민의 민원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원이 되겠습니다.”

신임 오세욱(53) 광주지방법원 원장은 13일 취임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되기 위해서 사건을 떨쳐버린다는 생각의 형식적 재판을 해선 안 된다”며 법관과 직원들의 주인 의식을 강조했다.

그는 “민원인들의 물음에 형식적인 응답이 아닌 원고에게는 이기는 방법을, 피고에게는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법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 및 민원 업무에 있어 하드웨어 부문에선 분명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소프트웨어 부문은 자신할 수 없다”면서 자기 반성과 분발을 주문했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오 지법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도입 취지는 크지만 시행상 적

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시련이 뒤따를 것”이라며 “문제점을 그때그때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 출신인 오 법원장은 광주 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1년 광주지법 판사(연수원 8기)로 임관돼 ▲순천지원장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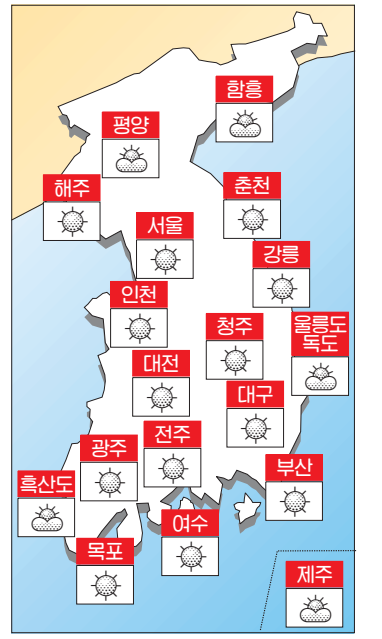
누그러지는 강추위

2월 14일

(음 1월 8일)

◇전국날씨

광주	구름 조금	-5~5℃
주요	구름 조금	-3~5℃
포수	구름 조금	-5~5℃
안	구름 조금	-5~5℃
도	구름 조금	-7~5℃
남	구름 조금	-6~5℃
해	구름 조금	-7~6℃
상	구름 조금	-6~5℃
고	구름 조금	-7~5℃
산	구름 조금	-6~3℃
진	구름 조금	-3~5℃
남	구름 조금	-7~4℃
도	구름 조금	-10~5℃
북	구름 많음	0~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목포 밀물 < 07:19 썰물 < 12:26
 19:13 썰물 < 01:56
 여수 밀물 < 01:56 썰물 < 07:53
 13:43 썰물 < 20:27

▲해돋이 07:21 ▲해질 18:13 ▲달돋이 11:07 ▲달질 01:02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씨						
최저/최고	-4/4	-4/5	-3/7	-4/9	-3/8	-2/7

기초수급 대학생 1인당 400만원 지원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 신설

올해부터 일정 성적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신입생 1만8천명과 지방대 인문계 우수학생 2천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을 2008년에 신설, 올해중 모두 825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은 올해 대학에 들어가는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의 입학 성적이 수능 3개 영역(언어·수리·외국어) 6등급 이상 또는 고교 내신인수 과목 2분의 1이

상 6등급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지원 금액은 국공립대 평균 등록금 수준(연 400만원)에 근거, 1학기의 경우 200만원이며 올해 모두 1만8천여명에게 총 70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장학금은 우선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적용되며 2009학년도에는 1학년과 2학년에 지원되는 등 연차 확대된다.

지방대 인문계 장학금은 향후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대 인문계열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에게 올해 모두 125억원이 지원된다.

전남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확대

목포 제외 21개 시·군으로

올해부터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가 목포를 제외한 도내 21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된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를 전남도내 9개 시·군에서 실시했다.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수 강사 확보와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이동

수단 등 재정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방과후 다양한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사업비 지원 예산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제공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편 구례교육청은 구례군과 함께 지난 2006년부터 2년 연속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돼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민,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등 방과후 학교 우수사례로 꼽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KWANGJURO 3.1 MARATHON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일: 2008.03.01(토) 오후 9시

장: 호남대학교학생기숙사 및 호남대 생활체육관-삼천교

참가비용: 일반인 50,000원, 학생 30,000원, 장애인 20,000원

문의: 061-279-8541

광주대학교

광주일보

광주체육관